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강 수 경
가천대학교

김 해 미
세살마을연구원

정 미 라[†]
가천대학교

본 연구는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구조적 관계와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경기지역의 임산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원부모와의 애착형성 및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지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5502).

† 교신저자 : 정미라,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Tel : 031-750-8660, E-mail : mrchung@gachon.ac.kr

임신은 여성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다. 임신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태아와의 애착이나 출산 후 자녀와의 애착에 큰 영향을 준다(백현정, 2009; 이승아, 이성희, 2015; Grace, 1989; Yarcheski, Mahon, Yarcheski, Hanks, & Cannella, 2009). 임신부는 태아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고 태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신부의 태아를 향한 사랑과 유대감을 태아애착이라고 한다(허명행, 1995; Condon, 1985). 태아애착은 임신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역동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유현자, 김성훈, 2008).

임신기 태아애착은 출산 후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심리적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 후 애착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다(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Peluso, Peluso, Kern & White, 2004; Wilson et al., 2000). 특히 태아애착의 질이 높은 경우 임신부의 산전·후 우울감을 낮추는 반면 태아애착의 질이 낮으면 우울감, 불안감, 혼란, 피로감 등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태아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부정해 임신부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등 태아와 임신부 자신에게 위협한 행동을 하게 된다(권미경, 2007; 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Condon, 1985). 또한 Wilson 외(2000)의 연구에서는 임신기에 태아와 어머니의 결속력이 높고,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 출산 이후 영유아기 탐구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임신기에 임신부들의 태아애착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태아애착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태아애착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중요하다. Bowlby(1969)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면서 영유아기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만들게 하여 이후 발달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애착의 영향력은 영유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결혼생활과 이후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Verhage 외(2016)는 임신부가 임신기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화해과정을 거치며 친모와 태어날 아이 모두와 긍정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신부가 어머니와 형성한 안정적 애착이 태아와의 애착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은 자녀 출생 후 모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Beebe & Lachmann, 2013; Hautamäki, Hautamäki, Neuvonen, & Maliniemi-Piispanen, 2010; Raby, Steele, Carlson, & Sroufe, 2015; Verhage et al., 2016)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은 성인이 된 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방식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이는 아이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신적 표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영유아 시절에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를 '안전기저'로서 인식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사랑받을 만

한 존재로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Diamond & Hicks,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즉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반면 영유아기에 어머니가 아이의 요구와 반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도 불신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게 된다(Bowlby, 1973; Mikulincer & Shaver, 2007). 이러한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성인애착이라고 하는데, 성인애착은 성인이 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하며, 거절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높은 성향인 불안애착과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과 가까워짐에 있어서 불편함이 높은 성향인 회피애착의 두 가지는 대표적인 불안정 애착으로 구분된다(Fraley, Waller, & Brennan, 2000). 선행연구(양수진, 2010;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에서는 원가족 어머니 애착과 다른 성인에 대한 애착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져 안정적으로 성인애착을 형성하고(양수진, 2010),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이성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성인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성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성인애착은 이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에 대한 몇

몇 연구들은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예비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Mikulincer와 Florian(1999)의 연구와 Priel과 Besser(2000)의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성인애착 스타일을 가진 임신부들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시까지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태아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스타일의 임신부들은 임신 초기에는 태아애착이 약하며 정신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된 성인애착은 임신기에 태아와의 애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인애착이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 시사한다.

또한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 성인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결혼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인식처와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관계불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성인애착의 유형 중 불안애착 성향이 높으면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고 재확인하여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타인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Fraley & Shaver, 2000). 반면 회피애착 성향이 높으면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고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점차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결혼만족감이 낮아지게 된다(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Collins와 Feeney(2000, 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유지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적절한 지지추구 행동을 통한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부부관계 질이 높아진다. 또한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강차연(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유형이 불안정형인 경우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많아서 배우자와 관계의 질이 낮아졌고, 김민희와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인 경우 불안정애착보다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배우자를 보살피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을 예측해주는 의미 있는 요인이다(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정미라, 강수경, 이해진, 2012). 임신기에 부부관계 질이 좋고 배우자 지지가 높은 임산부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태아애착이 높아지고,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부부관계 질이 낮은 임산부는 스트레스가 높아져 태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며 태아애착이 낮아진다(박미경, 이영숙, 1999). 임신기간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임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낮아지게 하고, 아기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표현한다고 한 연구결과(Gourounti, Anagnostopoulos, & Sandall, 2014)를 통해 임산부의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태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지각한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는 태아애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산전관리의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되고 있다(Ossa, Bustos, & Fernandez, 2012).

한편 원가족 어머니애착, 부부관계 질과 태

아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백현정, 2009; 우현경, 채진영, 2016)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관계 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백현정(2009)의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배우자 지지를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서도 임산부 뿐 아니라 배우자인 예비아버지가 아동기에 형성한 원부모와의 애착이 후에 배우자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희(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 애착을 강하게 형성할수록 부부갈등해결을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고, 이후 자녀와 안정애착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린시절 부모와 맺은 애착의 형태는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태에 따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패턴이 달라지며 그것이 꽤 오랫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쳐 그것이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Bowlby, 1969 Owens et al., 1995; Simpson & Rholes, 1998).

또한 원가족 어머니애착,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의순, 2006; Fournier, Brassard, & Shaver, 2011; McCarthy, Maughan, 2010). 박의순(2006)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부부는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고, McCarthy와

Maughan(2010)의 연구에서는 어린시절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기에 성인애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로맨틱한 관계와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한 IJzendoorn와 Bakermans-Kranenburg(1996)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경험이 부모자신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환경 및 상황변인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을 매개하여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태아애착과 관련된 연구는 임신부의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강수경, 정미라, 2012; 권미경, 방경숙, 2011; 위휘, 박소연, 2012), 부부관계 질 및 배우자 지지와 같은 관계적 특성(권수현, 이승연, 2013; 우현경, 채진연, 2016; 정영숙, 2004)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예측하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나 성인애착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고(Diamond & Hicks, 2004; 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며(이희숙, 박경, 2008; 한혜영, 현명호, 2006; Cobb, Davila, & Bradbury, 2001; Gallo & Smith, 2001),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백현정, 2009; 정영숙, 2004; 정미라 외, 2012).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영향이 평생에 걸쳐서 작용한다는 연구(Ainsworth, 1989; Bowlby, 1982)와 태아애착이 이후 아이의 발달

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Peluso, Peluso, Kern, & White, 2004)에 따라 임신부의 원가족 경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어날 아이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고착된 대인관계방식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이 매개효과를 밝히고,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 대한 직, 간접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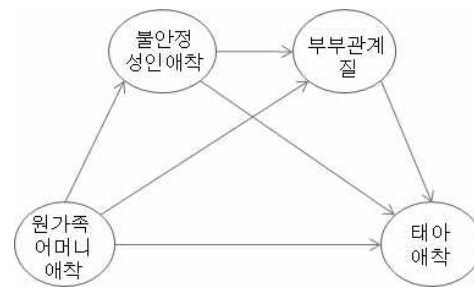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자치구의 임신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인	하위범주	빈도(%)
연령	21세 이상 - 30세 미만	117(19.4)
	30세 이상 - 40세 미만	473(78.6)
	40세 이상	12(2.0)
최종학력	고졸	23(3.7)
	대졸	473(75.7)
	대학원졸	106(17.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4.3)
	200만원 - 299만원 이하	90(14.4)
	300만원 - 399만원 이하	117(18.7)
	400만원 - 499만원 이하	129(20.6)
	500만원 - 599만원 이하	97(15.5)
	600만원 - 699만원 이하	60(9.6)
	700만원 이상	71(11.4)
취업여부	취업	366(58.6)
	미취업	233(37.3)
임신주수	10주 미만	4(6)
	10주 이상 - 20주 미만	99(15.8)
	20주 이상 - 30주 미만	266(42.6)
	30주 이상 - 40주 미만	234(37.4)
	전체	625(100.0)

note. 전체 사례수에 일부 차이가 있음

부교육에 참가한 임신부 625명이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21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117명(19.4%),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473명(78.6%), 40세 이상이 12명(2.0%)으로 대다수가 30대였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23명(3.8%), 대졸이 473명(78.6%), 대학원졸이 106명(17.6%)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7명(4.3%), 200만원 이상에서 299만

원 이하가 90명(14.4%), 300만원 이상에서 399만원 이하가 117명(18.7%), 400만원 이상에서 499만원 이하가 129명(20.6%), 500만원 이상에서 599만원 이하가 97명(15.5%), 600만원 이상에서 699만원 미만이 60명(9.6%), 700만원 이상이 71명(11.4%)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366명(58.6%), 미취업자가 233명(37.3%)이었다.

연구도구

원가족 어머니애착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1997)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PA-R에서 원가족 어머니애착만을 측정하여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감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나 심리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소통과 공감을 나타내고, 소외감은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정서적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나, 5점 척도는 '보통'이라는 중간 항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시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오인환, 1992) 본 연구에서는 '보통' 응답을 제외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감과 의사소통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소외감 하위요인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신뢰감은 .85, 의사소통은 .83, 소외감은 .76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경험척도 개정판(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Questionnaire: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안애착 18문항, 회피애착 18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애착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유기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타인과의 친밀해 지는 것에 대한 회피와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나타낸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된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 애착불안 .89, 애착회피 .85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애착불안은 .90, 애착회피는 .87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질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현숙(2001)이 개발한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류 영역 16문항, 정서 영역 16문항, 인지 영역 16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영역을 제외하고 교류와 정서 하위요인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교류는 부부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서는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애정표현을 얼마

나 하는지를 측정한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교류와 정서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부부관계 질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 교류는 .85, 정서는 .90으로 나타났다.

태아애착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Cranley (1981)가 개발하고 이경숙 외(2013)가 번안 및 타당화한 태아애착 척도(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MF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과 태아의 구별 2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 2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3문항, 자기제공 5문항, 역할취득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과 태아의 구별은 산모가 태아와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태아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뜻하며,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은 태아의 생김새나 움직임의 의도를 추측해보는 시도를 의미하고 자기제공은 태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도, 역할취득은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는 정도를 뜻한다. 원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아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경숙 외(201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4였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87, 태아와의 상호작용 .75,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87, 자기제공 .75, 역할취득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4였고, 자신과 태아의 구별 .75, 태아와의 상호작용 .70,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74, 자기제공 .75, 역할취득 .8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2015년 8월 임신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G대학에서 주최하는 서울·경기 지역의 임신부 교육에 참여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2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었다. 각 자치구 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통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태아애착 설문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임신부 교육이 시작되기 전 실시하였고,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분가량이다. 설문지는 임신부 635명에게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625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과 M-plus 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

애착간의 경로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전에 각 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살펴보고,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확대지수 값(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보았다.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Anderson, Gerbing, 1988). 모형 적합도는 모형간명성, 해석가능성,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CFI, TLI, RMSEA, SRMR를 모두 함께 보았다.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5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고, .90이면 보통 수준으로 해석되며,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SRMR은 잔차에 기반한 지수로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각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 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표 2에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값,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자신과 태아의 구별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들 간에 낮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13 \sim .30, p < .01$). 원가족 어머니애착 모두와 성인애착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43 \sim -.20, p < .01$),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22 \sim .30, p < .01$). 성인애착과 태아애착 관계에서는 불안애착과 자신과 태아의 구별, 역할취득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하위요인들 간에는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20 \sim -.09, p < .01, p < .05$).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 간에도 낮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26 \sim -.14, p < .01$),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 간에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2 \sim .40, p < .01$). 주요 변인들의 전체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들끼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0 \sim .40, p < .01$).

각 변인들의 평균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원가족 어머니애착($M = 3.25, SD = .42$)과 부부관계 질($M = 3.36, SD = .44$), 태아애착($M = 3.39, SD = .36$)은 모두 '대체로 그렇다(3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불안정 성인애착($M = 2.06, SD = .32$)은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 성인애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기준(왜도 < 2, 첨도 < 7)에 맞아서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Curran, West, Finch, 1996).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확대지수 값(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인의 VIF가 1.12~1.25로 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어머니 애착	2	.88**	1														
	3	.90**	.70**	1													
	4	.81**	.65**	.60**	1												
불안정 성인 애착	5	-.40**	-.33**	-.31**	-.43**	1											
	6	-.34**	-.32**	-.22**	-.40**	.81**	1										
	7	-.29**	-.20**	-.28**	-.25**	.77**	.29**	1									
부부 관계 질	8	.39**	.26**	.25**	.22**	-.30**	-.20**	-.18**	1								
	9	.26**	.22**	.22**	.23**	-.26**	-.21**	-.19**	.91**	1							
	10	.30**	.28**	.26**	.22**	-.23**	-.20**	-.14**	.93**	.77**	1						
	11	.30**	.28**	.29**	.19**	-.20**	-.15**	-.17**	.40**	.36**	.38**	1					
	12	.07	.04	.08*	.02	-.11**	-.07	-.09*	.15**	.16**	.12**	.45**	1				
태아 애착	13	.24**	.22**	.23**	.16**	-.16**	-.13**	-.13**	.38**	.36**	.36**	.72**	.26**	1			
	14	.27**	.25**	.26**	.18**	-.14**	-.11**	-.12**	.30**	.26**	.28**	.73**	.17**	.56**	1		
	15	.26**	.25**	.25**	.17**	-.19**	-.15**	-.16**	.30**	.26**	.31**	.81**	.19**	.45**	.44**	1	
	16	.22**	.20**	.21**	.13**	-.11**	-.07	-.10*	.32**	.29**	.31**	.84**	.26**	.54**	.61**	.55**	1
평균		3.25	3.39	3.03	3.37	2.06	1.89	2.23	3.36	3.33	3.39	3.39	3.11	3.55	3.73	3.10	3.54
표준편차		0.42	0.41	0.52	0.47	0.32	0.41	0.37	0.44	0.45	0.47	0.36	0.57	0.52	0.40	0.47	0.49
왜도		-.69	-.62	-.46	-1.32	.15	.24	.15	-.16	.18	.02	-.43	-.10	-1.02	-1.15	.00	-.90
첨도		.42	.33	.08	2.49	.57	.34	.71	.61	3.29	2.28	-.65	-.57	.45	.03	-.63	.21

1. 모애착-전체 2. 신뢰감 3. 의사소통 4. 소외감 5. 성인애착-전체 6. 불안애착 7. 회피애착 8. 부부관계 질-전체 9. 교류
10. 정서 11. 태아애착-전체 12. 자신과 태아의 구별 13. 태아와의 상호작용 14.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15. 자기제공
16. 역할취득

** $p < .01$

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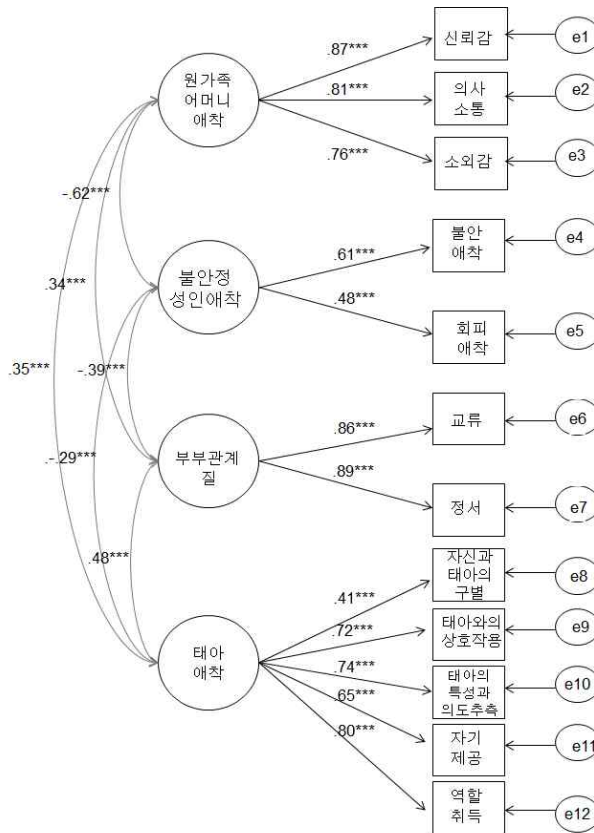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측정모형 검증

임산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 불안정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측정변인 간

관계구조가 실제 경험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χ^2 ($df=48, N=625$)=149.990($p < .001$), TLI=.949, CFI=.963, RMSEA=.058(90% 신뢰구간=.048-.069), SRMR=.034으로 TLI, CFI가 .90이상으로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측정모형	149.990	48	.963	.949	.034	.058 (.048~.069)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는 .08이하로 보통수준이고 SRMR은 .08이하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직접경로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의 질이 매개하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각각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에서 태아애착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애착에서 태아애착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3과 같은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963, TLI=.949로 .90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고 RMSEA=.058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고, SRMR=.03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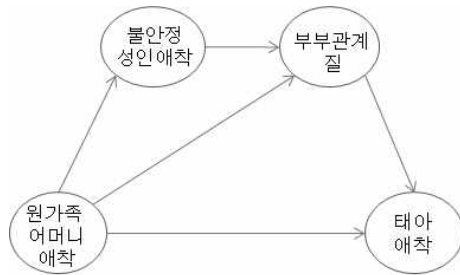


그림 3. 수정모형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수정모형의 경우 CFI=.963, TLI=.95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고, RMSEA=.057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며, SRMR=.034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서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모두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정보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Delta\chi^2(\Delta df=1) = 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보다 더 간명한 수정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판단하여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모형비교를 통해 채택된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검증 결과가 표 5와 그림 4에 나타나있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beta = -.62, p < .001$)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부부관계 질($\beta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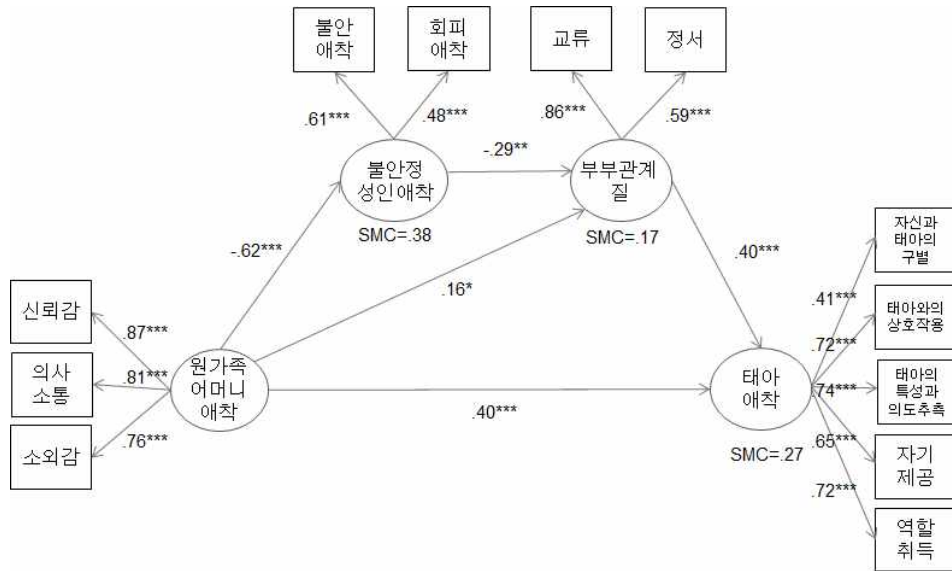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연구모형	149.9	48	.963	.949	.034	.058 (.048~.069)
수정모형	149.2	49	.963	.950	.034	.057 (.047~.068)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불안정 성인애착	-.43***	0.05	-0.62
원가족 어머니애착 -> 태아애착	.11**	0.04	0.22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부부관계 질	.18*	0.09	0.16
불안정 성인애착 -> 부부관계 질	-.46**	0.17	-0.29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18***	0.03	0.40

*** $p < .001$ ** $p < .01$ * $p < .05$



*** $p < .001$ ** $p < .01$ * $p < .05$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그림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요인부하량과 다중상관지수

$p < .05$)에는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효과크기가 작았다. 이어서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태아애착($\beta = .22,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beta = -.29, p < .01$)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beta = .40,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사이에서 불

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하였다. Sobel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결과, 어머니 애착이 부부관계 질을 매개로 태아애착에 가는 경로가 $Z = 1.94 (p < .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고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주어 태아애착으로 가는 이중매개효과 또한 $Z = 2.45 (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Z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1.94*
원가족 어머니애착 -> 불안정 성인애착 -> 부부관계 질 -> 태아애착	2.45**

** $p < .01$ * $p < .05$

논 의

본 연구는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부의 모애착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백현정(2009)의 연구,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와 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임신부가 태아가 보내는 단서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태아애착이 더 잘 형성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영숙, 2004; Mikulincer & Florian, 1999)와도 유사한 결과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수용과 애정의 정도가 임신부로서 태아와의 관계형성에서 얼마나 긍정적이입적이고 인내심을 지닐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한다(Bowlby, 1969). 즉 임신부가 어린 시절 원가족과 맺었던 애착의 질이 높을수록 태아애착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신 시기에 안정적인 태아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어린 시절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부모됨을 준비하는 임신부 교육에서 원가족의 양육방법과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알아보고 추후 태아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인식하고 원가족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를 부부관계 질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에서 형성된 애착은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임신부의 태아애착을 높였다. 이는 원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부갈등방법과 같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원자희,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이 결혼만족도 혹은 부부관계 질을 예측한다는 연구(백현정, 2009;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Owens et al., 1995; Simpson & Rholes,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이에 많은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 원가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착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배우자에 대한 지각과 의사소통 방식, 자기분화 등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부부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임유진, 박정운, 김양희, 2008; 조소희, 정혜정, 2008; Owens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직접적인 경로보다 성인애착을 통한 매개경로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이에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애착과 부부관계 질 사이의 적절한 매개변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기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로 배우자에게서 적절한 안전기지 역할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임신기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관련성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정미라, 강수경, 이해진, 2012; Wilson et al, 2000)에서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 질이 태아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 지지와 태아애착의 관계가 강한 정적 상관이나 나타났고(정영숙, 2004), 임신 후반기에 낮은 태아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배우자와 가족의 낮은 지지수준이며(Ossa, Bustos, & Fernandez, 2012), 부부관계 질이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을수록 태교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성미혜, 주경숙, 2011). 또한 배우자 지지는 태아애착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Yarcheski et al., 2009), 이는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면 태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태아애착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불안정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불안정 성인애착을 통해서 태아애착에 미치는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인애착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인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 80% 이상이 임신 중·후반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애착의 불안정성과 안정성이 태아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Mikulincer와 Florian (1999)의 연구를 보면, 불안애착 유형이 특히 임신 초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태아애착의 정도가 안정적인

애착유형 유형을 지닌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나타났고, 회피애착 유형은 임신 1, 3기에 태아와의 애착이 낮고 2기에 다소 올라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임신 중·후반기이고, 특히 임신 2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인애착과 태아애착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후속연구에는 임신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골고루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의 성향이 높고 낮은 정도를 파악한 반면, Priel과 Besser(2000)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애착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배우자와의 애착만을 측정한 점에서 성인애착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를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이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모애착, 성인애착, 부부관계 질, 태아애착의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배우자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백현정(2009)의 연구와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경험과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태아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힌 우현경과 채진영(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중매개경로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상황적 모델을 제안한 IJzendoorn 외(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초기 경험이 부모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녀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모애착, 성인애착, 모애착의 3세대 전이를 연구한 Hautamäki 외(2010)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유형과 성인애착유형이 12개월과 3세 영아와 어머니 애착유형과 유사함을 밝히면서 애착의 연속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인생초기의 애착경험을 통한 개인의 인지적 내적작동모델이 성인기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6개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ltigan et al., 2014)를 통해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임신부가 원가족과의 애착이 잘 형성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신미, 2006; 장휘숙, 2002; Hazan & Shaver, 1987; Kobak & Sceery, 1988),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 대해 중단연구를 한 Waters, Merrick, Albersheim과 Treboux(1995)의 연구에서도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애착을 평가하고 그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성인애착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아기 때와 70% 이상의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인기의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패턴(가족과의 따뜻함과 민감함 등과 같은 상호작용)은 자신의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inero et al, 2009).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도(이희숙, 박경, 2008)에서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부부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회피애착일 때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인 애착대상과의 근접성과 지지추구의 반복적인 실패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좌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애착관련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역기능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Kobak & Hazan, 1991). 반면 안정애착인 임신부는 배우자가 안전기지과 안식처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이것을 위해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Carnelley et al.,1996; Fuller & Fincham,1995; Kirkpatrick & Davis, 1994). 이러한 배우자의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부관계 질은 태아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정미라, 강수경, 이해진, 2012; 정연숙, 2004; Yarcheski et al., 2009; Wilson et al, 2000). 따라서 원가족 어머니애착은 성인기 불안과 회피애착과 같은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불안정 애착은 부부관계 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관계 질이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부부관계에서의 지지와 정서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부부 간 의사소통의 개선이나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지 등을 부모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부부관계 질을 개선함으로써 태아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원가족 어머니와의 관계와 불안정 성인애착과 같은 관계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태아애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이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중매개경로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련성의 경로를 밝히고, 임신부의 안정적인 태아애착에 기여하는 변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배우자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부모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 교육에 참여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임신부를 표본으로 하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가정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후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미혼모와 같이 임신기에 더욱 많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임신부의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가족 어머니와의 애착, 성인애착 등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예비어머니인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태아애착은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비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태아애착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장연집 (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5.
- 강수경, 정미라 (2012). 임신부의 스트레스 및 기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1(2), 213-223.
- 권미경, 방경숙 (2011). 임신 중 스트레스, 우울과 모-태아 애착 및 태아체중의 상관관계. *한국간호학회지*, 41(2), 276-283.
- 권수현, 이승연 (2013). 예비 어머니의 산전애착과 배우자 지지,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65-77.
- 김명식, 이경숙, 신의진 (2011). 태아애착과 산후 우울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011, 192-192.
- 김민희, 민경환 (2007).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213-233.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3), 200-209.
- 박미경, 이영숙 (1999). 임부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태아애착행위, 출산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1), 47-61.
- 박의순 (2006). 전생애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 부부의 사랑: 대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3, 33-60.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현정 (2009).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 지각과 정서상태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미혜, 주경숙 (2011). 임부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태교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31-38.
- 신 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 양수진 (2010).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 채진영 (2016).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3, 39-54.
- 위휘, 박소연 (2012). 임부의 불안, 우울, 산전 스트레스와 모-태아애착 및 감사성향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274-286.
- 유현자, 김성훈 (2008). 명상과 미술활동을 활용한 태교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정서에 미치는 효과. 명상심리상담, 2, 249-284.
- 이고은, 이 영 (2011). 성인 애착 표상의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32(4), 63-81.
- 이경숙, 김진하, 홍수중, 장형윤, 신의진, 김명식 (2013). 태아애착 척도 (MF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81-91.
- 이승아, 이성희 (2015). 임부의 태아애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3), 2020-2028.
- 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심 지각과 신혼기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43-154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오인환 (1995). 사회조사방법론: 오차요인 집중연구. 서울: 나남.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01-121.
- 정미라, 강수경, 이혜진 (2012). 임신기 부부의 부부관계 질과 태아애착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4), 51-61.
- 정영숙 (2004).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산전애착과 친모와의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3), 210-217.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조소희, 정혜정 (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73-889.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허명행 (1995). 일대일 분만지간호사가 초산모의 분만동통, 분만스트레스 반응, 분만경험 및 신생아 상태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2), 188-202.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ebe, B., & Lachmann, F. M. (2013). *The origins of attachment: Infant research and adult treatment* (Vol. 60). UK: Routledge.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s 1, 2*. London: Hogarth.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vol 2*,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3), 401-416.
- Cobb, R. J., Davila, J., & Bradbury, T. N. (2001).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1143.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ondon, J. T. (1985). The Parental - Foetal Relationship-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Expectant Par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4(4), 271-284.
- Condon, J. T. (1993). The assessment of antenatal emotional attachment: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6(2), 167-183.
- Cranley, M. S. (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5), 281-28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amond, L. M., & Hicks, A. M. (2004). *Psychobiological Perspectives on Attachment: Implications for Health over the Lifespan*.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656-1669.
- Feeney, B. C., & Collins, N. L. (2001).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72-994.
- Fournier, B., Brassard, A., & Shaver, P. R. (2011). Adult attachment and male aggression in couple relationships: The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media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0), 1982-2003.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uller, T. L., & Fincham, F. D. (1995). Attachment style in married couples: Relation to current marital functioning, stability overtime, and method of assessment. *Personality Relationships*, 2(1), 17-34.
- Gallo, L. C., & Smith, T. W. (2001). Attachment style in marriage: Adjustment and responses to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63-289.
- Gourounti, K., Anagnostopoulos, F., & Sandall, J. (2014). Poor marital support associate with anxiety and worries during pregnancy in Greek pregnant women. *Midwifery*, 30(6), 628-635.
- Grace, J. T. (1989). Development of maternal-fet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8(4), 228-232.
- Gloger-Tippelt, G. (1983). A process model of the pregnancy course. *Human Development*, 26(3), 134-148.
- Hautamaki, A., Hautamaki, L., Neuvonen, L., & Maliniemi-Piispanen, S. (2010).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7(5), 618-634.
- Haltigan, J. D., Leerkes, E. M., Wong, M. S., Fortuna, K., Roisman, G. I., Supple, A. J., & Plamondon, A. (2014). Adult attachment states of mind: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ethnicity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85(3), 1019-103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135-146.
- McCarthy, G., & Maughan, B. (2010).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love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5), 445-461.
- Mikulincer, M., & Florian, V. (1999). Maternal-fetal bonding, coping strategies, and mental health during pregnancy -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3), 255-27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ress.
- Ossa, X., Bustos, L., & Fernandez, L. (2012). Prenatal attachment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in Temuco, Chile. *Midwifery*, 28(5), 689-696.
- Owens, G., Crowell, J. A., Pan, H., Treboux, D., O'Connor, E., & Waters, E. (1995). The prototype hypothesis and the origins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dult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romantic partne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216-233.
- Peluso, P. R., Peluso, J. P., White, J. F., & Kern, R. M. (2004). A comparison of attachment theory and individual psychology: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2), 139-145.
- Priel, B., & Besser, A. V. I. (2000). Adult attachment styles, early relationships, antenatal attachment, and perceptions of infant temperament: A study of first time mothers. *Personal Relationships*, 7(3), 291-310.
- Raby, K. L., Steele, R. D., Carlson, E. A., & Sroufe, L. A. (201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infant attachment patterns across two generation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7(4), 414-428.
-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8-21.
- Verhage, M. L., Schuengel, C., Madigan, S., Fearon, R. M., Oosterman, M., Cassibba, R., & van IJzendoorn, M. H. (2016). Narrowing the transmission gap: A synthesis of three decades of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Psychological Bulletin*, 142(4), 337-366.
- Volling, B. L., Notaro, P. C., & Larsen, J. J.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marriage, and parenting. *Family Relations*, 47, 355-367.
- Waters, E., Merrick, S., Albersheim, L., Treboux, D., & Crowell, J. (1995). From the strange situation to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 20-year longitudinal study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Wilson, M. E., White, M. A., Cobb, B., Curry, R., Greene, D., & Popovich, D. (2000). Family dynamics, parental? fetal attachment and infant tempera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1), 204-210.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i, T. J., Hanks, M. M., & Cannella, B. L. (2009). A meta-analytic study of predictors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5), 708-715.

1차원고접수 : 2017. 10. 22.

심사통과접수 : 2018. 02. 20.

최종원고접수 : 2018. 03. 04.

The Influence of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on Maternal-Fetal Attachment: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Su-Kyoung Kang
Gachon University

Hae-Mi Kim
Sesalmaul Researcher

Mi-Ra Chung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regnant women's attachment to mother, insecure adult attachment, marital quality,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mediating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on 625 pregn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prenatal education program in Seoul and Gyeonggi,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to mother influenced 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econd, attachment to mother affected in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through marital quality. Third, attachment to mother affected progressively maternal-fetal attachment through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qu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ategies to improve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support for parent and spouse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to mother, insecure adult attachment, marital quality, maternal-fetal attachment